

인격, 이성 따위는 지금 필요 없어

(우울증의 증상 3)

가출, 무단결석, 음주나 본드 흡입 등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중요한 정서 상태는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는 타고난 기질(氣質)과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그것이고, 둘째 어떤 이유로든 우울증이 있어서 참을성이 없어지고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비행과 관련된 청소년들에게 “너, 사회에 불만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불만이 많고 못 마땅한 게 너무 많아 몽땅 터뜨려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쪽은 성격 장애보다는 오히려 우울증 환자에게 더 많은 편이다. 얼핏 보아 똑같이 파괴적이고 위험한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라도 자세히 검증해 보면 그 기원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젊은 가수들의 노랫말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이상(理想)은 행위(行爲)앞의 노예, 관념(觀念)은 이유 없는 참견... 상상(想像)은 목적 없는 방향, 인격(人格)은 실속 없는 과시...”, 게다가 그 노래는,

“우리는 인격(人格), 상상(想像), 이성(理性) 따위는 지금 필요 없어”라는 파괴적인 내용으로 계속된다. 그 노랫말은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인격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잘 나타내는 것 같다.

한편 “우리 오늘밤은 기분 가는 데로 그냥 가볼까?”라는 농담이 있는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는 상당수에서 ‘그냥 가 보게’ 된다. 우울증은 자신을 억제하는 초자아가 너무 강해서 온다고 하나 이런 경우는 마치 초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K군은 반 년 여 전부터 갑자기 부모에게 뼈뺏하게 굴고 집안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니 얼마 전부터는 아예 공부할 생각을 않고 학교 간다고 나가서는 전자오락실에서 깜깜해질 때까지 앉아 있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게 누어 지내기가 일쑤였다.

한 살 위인 누나는 공부를 제법 잘 하는데다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지라 부모는 늘 두 남매를 비교하며 “네 누나의 절반만큼만 따라가라”고 나무라곤 해 왔었다.

원래 내향적인 성격으로 별로 말이 없던 K군은 누나를 심하게 질투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때려죽일 듯이 굴더니 이제는 그것을 말리는 다른 모든 가족들과도 대화를 끊어 버렸다.

부모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나무라거나 하면 “닭살 돋게 하지 말라. 죽어 없어지면 될 것 아니냐?”라며 제 방의 물건을 죄다 부숴버리는 등 심하게 반항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는 핏김에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서 죽어라”라고 하였고 K군은 “산 자의 말은 거짓말, 죽은 자의 말은 진실”이라는 유서를 남긴 후 그 길로 나가 수면제를 백 알 이상 사 모으고는 단숨에 먹어 치워 버렸다.

여고 1학년 학생인 S양은 성적이 부진하여 어쩔 수 없이 교외에 있는 변두리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녀는 발생한지 약 1년 정도 되는 심한 우울증으로 잠도 잘 못 자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량 서클에 가입하더니 술 담배에 절어 사는 무서운 심대로 변해 버렸다.

S양은 낮에는 친구의 자취방에 숨어 잠을 자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야한 화장을 하고 술집으로 가서는 함께 잠을 잘 남자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당연히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부모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그녀는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에 빠져 있었다.

K군은 단기간의 입원 생활을 통해 항 우울제 등의 처방으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학업에 복귀하였고 그 후 순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S양은 입원하였다가 “미친 아이도 아닌데 왜 정신과에 입원시켰냐?”는 친지들의 거센 반발로 자의 퇴원을 시켜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얼마간 집에 있다 아주 멀리 가출해 버렸다.

몇 년 뒤 S양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이가 가출한지 일 년 정도 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때처럼 나쁘지 않아서 동남아에 있는 허름한 대학이라도 보내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병 때문에 입원해있었다는 진단서라도 있어야 졸업 증명을 어찌해보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2년이 훨씬 넘는 그 기간 동안 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땅에서는 다 소문이 나서 버젓한 곳에 시집가기는 글렀으니 외국에라도 내보내서 어찌해보겠다고는 심산이었다.

당연히 그런 요구는 거절되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심정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연민의 정보다 우선하는 질서를 깰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철없는 아이야 그때 그랬다 치더라도 문제를 그렇게 몰아간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